

해외초청 연자 강연

4월 27일(토)

# Anodontia환자의 문제점과 치료법



## Takayoshi Igarashi

- 1956-1962 일본대학교 치학부
- 1962-1966 일본대학교 대학원 치학연구과 보철학 전공
- 1966 치학박사 취득
- 1966-1971 일본대학교 치학부 조수
- 1968-1971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치학부 유학  
(Woelfel, Boucher, Huffman, Regenose교수에게 사사)
- 1972-현재 일본대학교 치학부 강사, 조교수, 교수
- 1989-1994 일본대학교 치학부 부속치과병원 부원장
- 1994-현재 일본대학교 치학부 부속치과기공사학교장

외배엽이형성증(外胚葉異形成症-Ectodermal dysplasia) 소아환자의 장기 관찰 결과, 외배엽계의 조직이나 기관의 형성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현하는 선천성 질환으로서, 반열성유전형식(伴劣性遺傳形式)에 기인하며 압도적으로 남성에게 발현하며, 무치증(無齒症), 모발(毛髮), 한선(汗腺), 피지선(皮脂腺) 등의 형성 부전이 있고 무한형(無汗型)이 많다.

치과적 소견으로서는 유치열(乳齒列), 영구치열(永久齒列) 모두에서 다수치의 결손이 보인다.

치배(齒胚)의 결여부에서는 치조골의 성장은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인 악골의 성장방향 그 자체는 이상은 없다. 의치에 의한 교합고경(咬合高徑)과 저작기능의 회복을 이루어 주면, 특이한 안모도 연령에 어울리는 심미성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83년 12월 18일에 태어난 외배엽이형성증(外胚葉異形成症-Ectodermal dysplasia)의 완전무치악(完全無齒顎) 소아환자가 1985년 8월에 본 치대병원의 소아치과에서 소아 총의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하여 제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87년에 처음으로 총의치를 제작-장착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의치조정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1990년 11월, 보철과로 소개되어, 총의치제작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성장-발육에 맞춰서 의치를 조정-제작하면서 12년간 치료를 계속하였다. 소아기의 총의치에서 혼합치열기를 경과하고 영구치열의 총의치로 이행하면서 어떤 점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할지 등, 반성점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상의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증례는 아니지만, 이러한 증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증례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이 증례를 통하여 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임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